

민족문화경전이야기총서

国家“十二五”少数民族语言文字出版规划项目
民族文字出版专项资金资助项目

다우르족

达斡尔族

Dawò'ěrzú

편자 총경
역자 림금산



료녕민족출판사
외국어교학과 연구출판사

© 林锦山 2014

©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有限责任公司 2014

图书在版编目(CIP)数据

达斡尔族: 朝鲜文 / 丛静编; 林锦山译. —沈阳: 辽宁民族出版社, 2014. 6

(民族文化经典故事丛书)

ISBN 978-7-5497-0812-3

I. ①达… II. ①丛… ②林… III. ①达斡尔族—民族文化—中国—少儿读物—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①K282.2-49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14)第124904号

达斡尔族

DAWOERZU

出版发行者: 辽宁民族出版社

地 址: 沈阳市和平区十一纬路25号 邮编: 110003

印刷者: 沈阳航空发动机研究所印刷厂

幅面尺寸: 180mm×240mm

印 张: 5

字 数: 40千字

印 数: 1-1500

出版时间: 2014年6月第1版

印刷时间: 2014年6月第1次印刷

责任编辑: 张学林

封面设计: 杜 江

责任校对: 李 京

标准书号: ISBN 978-7-5497-0812-3

定 价: 18.00元

法律顾问: 陈 光

版权专有 侵权必究

如有印装质量问题, 请与出版社联系调换

网址: www.lnmzchs.com

淘宝网店: <http://lnmz2013.taobao.com>

举报电话: 024-23284336

邮购电话: 024-23284335

联系电话: 024-23284340

《민족문화경전이야기총서》 편집위원회

주편

왕천근

부주편

장해양

학상근

편집위원회성원(ㄱㄴㄷ 순)

곽우파

두얼버타이(몽골족)

리소빙

푸즈다링(이 족)

샌미시누(위글족)

석국용

장금수(투자족)

전산천

정 아 (회 족)

황 연(거로족)

양 화

웅덕정(푸미족)

왕 리(만 족)

왕 봉(바이족)

왕효징

위 평(짱 족)

왕해연(창 족)

심고전문가(ㄱㄴㄷ 순)

김여빈(회 족)

송 전(몽골족)

수 청(몽골족)

장약박(몽골족)

왕철지(몽골족)

서 언

56개 민족은 56송이의 꽃이요

56개 형제자매는 한가족일세...

중국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노래를 익히 알고있을것이다. 중국사람이라면 당신이 어디를 가든, 당신이 년장자이든 년소자이든 이 아름다운 선률과 열렬하고 경쾌한 노래에 감동될것이며 혈관속에서 사뭇치는 중국심(中国心)을 그 누구도 개변시킬수 없을것이다.

중국은 예로부터 하나의 통일된 다민족국가이다. 새중국이 건립된후 식별을 거치고 중앙정부의 확인을 받은 민족은 56개이다. 한족을 제외한 55개 민족은 인구가 한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때문에 습관적으로 “소수민족”이라고 일컬어왔다. 이 55개 소수민족은 몽골족, 회족, 장족, 위글족, 묘족, 이족, 좡족, 부이족, 조선족, 만족, 좡족, 요족, 바이족, 투자족, 하니족, 까자흐족, 따이족, 리족, 리수족, 와족, 씨족, 고산족, 라후족, 수이족, 둥샹족, 나시족, 징퍼족, 끼르기즈족, 투족, 다우르족, 무로족, 창족, 부랑족, 싸라족, 모난족, 거로족, 시버족, 아창족, 푸미족, 따지크족, 누족, 우즈베크족, 로씨야족, 어원크족, 더양족, 보안족, 위구족, 징족, 따따르족, 두통족, 오로첸족, 허저족, 먼바족, 로바족, 지노족이다.

중국 각 민족의 분포특점은 대잡거(大杂居), 소집거(小聚居)에 서로 섞여서 거주하는것이다. 한족지구에 소수민족이 집거해있기도 하고 소수민족지구에 한족이 섞여서 살기도 한다. 이런 분포구조는 장기적인 력사발전과정에서 여러 민족이 서로 교제하고 류동하면서 형성되였다. 중국의 소수민족은 분포가 광범위한바 전국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마다 소수민족들이 거주하고있고 절대 대부분의 현급행정구에는 두개 이상의 민족이 거주하고있다. 소수민족은 주로 내몽골, 신강, 녕하, 광서, 서장, 운남, 귀주, 청해, 사천, 감숙, 료녕, 길림, 호남, 호북, 해남, 대만 등 성과 자치주에 분포되여있다. 중국에서 민족성분이 제일 많은 성은 운남성

으로서 25개 소수민족이 세세대대로 거주해왔다.

세계의 동방에 우뚝 선 중국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명을 갖고있다.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중국의 56개 민족은 정치, 경제, 지리환경, 종교신앙, 풍속습관이 서로 다름으로 하여 동종동원동근동맥동습동연(同种同源同根同脉同习同缘)의 공성을 갖고있는 한편 각 민족지간의 문화적차이도 갖고있다. 이로하여 풍부하고 다양한 중화민족대가정문화를 형성하였다. 내몽골대초원 몽골족의 “나다무(那达慕)” 경마에서 운남 시쌍반나 타이족산채의 발수절(泼水节)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지붕에서 전해내려온 신비한 고대 장족의 서사시 《거샤르왕전》에서 리강 량안 류삼저(刘三姐) 고향의 짝족대창(对歌)에 이르기까지, 장백산아래 해란강반 조선족의 장고춤에서 청해호반에 울려퍼지는 투족의 “꽃”노래에 이르기까지, 푸르름에 도취하게 하는 신강 톨판 포도골짜기에서 너울너울 춤추는 위글족의 무용에서 꿈같고 그림같은 대리바이족자치주 창산이해에서 둥둥거리는 삼현가락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런 오색찬란하고 풍격이 각이한 다민족문화가 중국문화의 장려한 화폭을 공동히 구성하였다.

중국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널리 알리고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기상만천한 중국 56개 민족의 역사문화를 세세대대 전해내려가며 중화민족의 정신적고향을 구축하기 위하여 외국어교학과연구출판사에서는 민족문화에 관련된 학자와 작가들을 특별초청하여 광대한 소년아동을 위한 이 “561문화과제—민족문화경전이야기 총서”를 편찬하였다.

이 총서는 전문 신세기 소년아동들을 위해 집필한 맞춤형도서라고 할수 있다. 한개 민족에 한책씩 모두 56권이다. 총서는 56개 민족의 역사문화발전을 주선으로 하면서 각 민족의 다채로운 이야기예술을 유기적으로 융합시키고 그림과 글이 어우러져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생동하고 형상적이므로 사상성, 이야기성, 지식성, 가독성을 한몸에 지니고있다.

56개 민족은 56송이의 꽃이다. 56권의 좋은 책을 모두어 한마디로 엮어본다. 우리 중화를 사랑하자. 좋은 책을 여럿이 읽자, 책을 읽으면 마음이 자란다.

“561문화과제” 편찬위원회

목 록

제1장 다우르족의 민족기원

다우르족기원에 관한 전설 /9

다우르족의 언어문자에 관한 이야기 /13

제2장 다우르족의 민족신앙

언두르에 관한 전설 /17

바이나차신에 관한 이야기 /23

제3장 다우르족의 생활습속

우라초에 관한 이야기 /27

쿠무러에 관한 이야기 /39

담배의 매력 /41

농부는 왜 토끼사냥을 즐길까 /43

기러기에 관한 이야기 /45

제4장 다우르족의 명절습속

“흑칠절”의 래력 /57

제5장 다우르족의 체육경기 및 민간예술

싸커에 관한 전설 /67

힘장사에 관한 이야기 /73

무쿠렌의 래력 /77

루르거러에 관한 이야기 /79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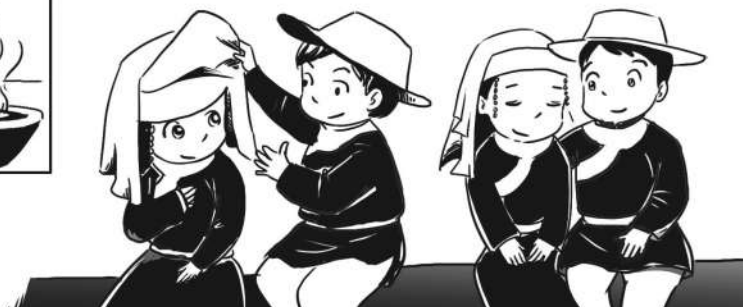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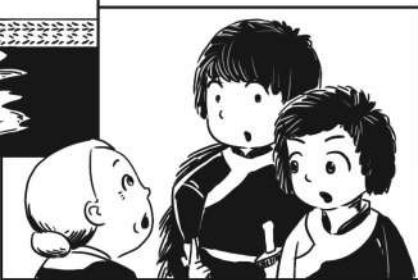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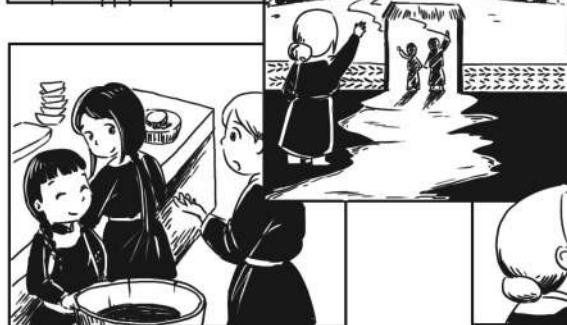
제1장 다우르족의 민족기원

다우르족은 고대 거란인(契丹人)의 후예로서 지금은 주로 내몽골자치구, 흑룡강성과 신강위글자치구에 집거하고있다. “다우르”란 “개척자”란 뜻이다. 2000년 제5차 전국인구보편조사의 통계에 따르면 다우르족의 인구는 132,394명이다. 다우르족의 래원에 관해서는 아름다운 전설이 있다.

다우르족기원에 관한 전설

멀고먼 옛날, 푸른 소나무와 측백나무로 둘러싸인 한 산기슭에 어머니와 두 아들이 살고있었다. 두 아들은 모두 명사수로서 100근 무게의 활을 당길수 있고 한번에 화살 10개를 날릴수 있었다. 한번은 형제가 힘을 합쳐 성산을 차지하고있는 큰 구렁이를 쏘아죽였다. 이에 산신은 고맙게 여겨 형제에게 각각 명마(神馬), 명견(神犬)과 명매(神鷹) 한마리씩 보내주었다. 그후로 형제는 매일 명마를 타고 명견과 명매를 데리고 밖에 나가 사냥을 하여 번마다 짐승을 가득 싣고 돌아왔다. 이렇게 세 식구가 아주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되어 어머니는 매우 기뻐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직 한가지 일이 마음에 걸렸다. 자신의 나이는 점점 늙어가는데 두 아들은 아직 장가를 들지 못했던것이다. 하여 어머니는 매일 천신(天神)에게 두 아들이 아름답고 선량한 두 처녀를 만나 장가를 들고 아들딸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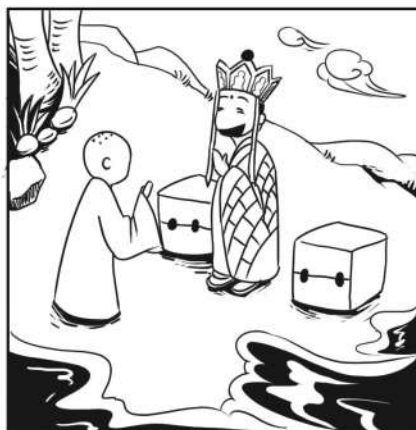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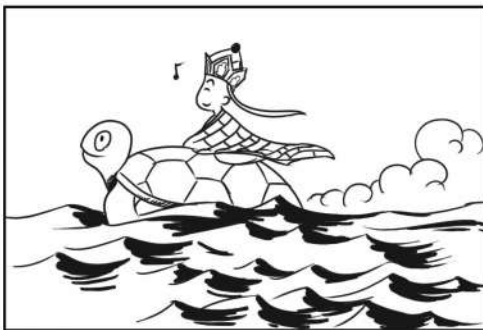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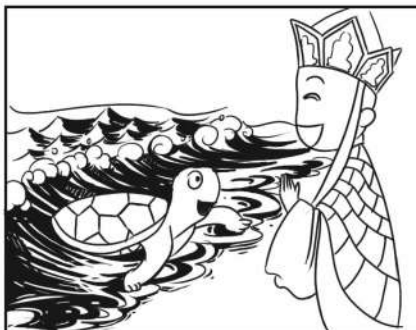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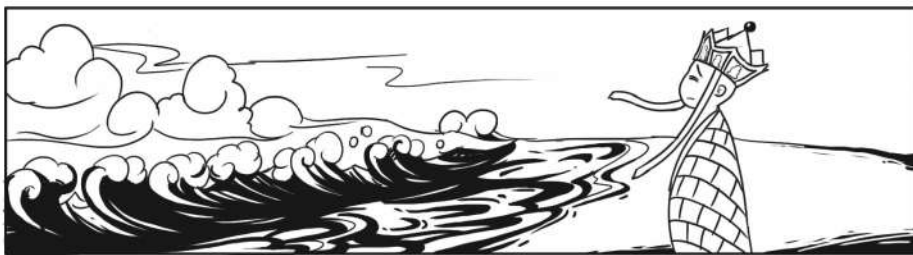


어느날 형제가 집을 나서자마자 젊고 아름다운 두 처녀가 집으로 들어와 늙은 어머니를 대신하여 방을 정리하고 불을 지펴 밥을 지었다. 어머니는 분명 천신님이 나의 청구를 듣고 아름다운 두 처녀를 나의 며느리로 보내주었다고 기쁘게 생각하였다. 그래서 지체없이 두 처녀에게 이름이 무엇이고 어디에 사느냐고 물었다. 그런데 두 처녀는 웃기만 하고 대답도 없이 일을 마치고는 총망히 떠나갔다.

두 처녀는 연속 며칠을 다녀갔다. 어머니는 이 사실을 두 아들에게 알렸다. 모자 세 사람은 모두가 두 처녀는 하늘의 선녀일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튿날, 두 형제는 사냥하러 나가는척하고는 조심스럽게 집뒤에 숨었다. 두 선녀는 어김없이 찾아왔다. 그들은 자기들을 날게 해주는 칠색 깃털옷을 지붕위에 벗어놓고 내려와 밥을 짓기 시작하였다. 두 형제는 예쁘게 생긴 두 선녀를 보고는 기뻐서 진심으로 그들과 부부의 연을 맺기를 바랐다. 하여 두 형제는 조심조심 지붕에 올라가 칠색 깃털옷을 가져다가 집뒤에서 태워버렸다.

두 선녀가 밥을 다 지어놓고 나와보니 지붕위에 놓아두었던 깃털옷이 보이지 않았다. 급히 여기저기 찾다가 집뒤에서 재로 변한 깃털옷을 발견하게 되었다. 결국 그들은 천궁으로 날아갈수 없게 되었고 각각 두 형제와 결혼하게 되었다. 두쌍의 부부는 아주 많은 자손을 두게 되었는데 그 자손의 자손이 바로 지금의 다우르족이다.



다우르족은 본 민족의 언어는 있지만 문자는 없다. 그들은 일상교류는 다우르 언어를 사용하고 문자는 주로 한자를 사용하며 소수 사람은 만문, 몽골문과 까자흐문을 겸용한다. 다우르족은 왜 자기문자가 없을까? 전하는데 의하면 이것은 모두 현장(唐僧)의 과실이라고 한다.

다우르족의 언어문자에 관한 이야기

전하는데 의하면 현장은 경을 구하기 위해 인도로 향하던 도중에 넓은 바다를 만났다. 그가 해안에 서서 걱정을 하고있을 때 갑자기 해상에서 큰 거부기 한 마리가 천천히 헤엄쳐오는것이 눈에 띄었다. 거부기는 현장앞으로 헤엄쳐오더니 물었다. “당신은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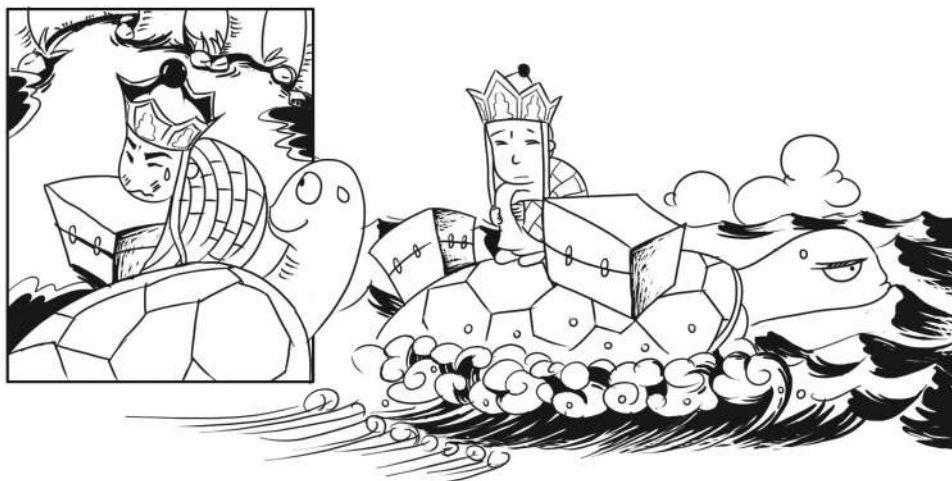
“경을 구하러 인도에 가려고 하는데 공교롭게 바다를 만났으니 어떻게 건는단말입니까?” 현장이 이렇게 대답하자 거부기가 말했다. “알고보니 바다를 건느시려는군요! 그 일이라면 근심마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마울수가! 그런데 난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할런지요?” 현장의 말에 거부기는 “사양할것없이 한가지 요구만 들어주면 됩니다. 인도에 가서 여래를 뵈옵거든 날 대신해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미 천여년을 살았는데 언제 죽는지말입니다.”

바다를 건지기 위해 현장은 쾌히 승낙하였다. 거부기는 현장더러 등에 올라앉으라고 하였다. 거부등은 마치 큰 배와 같아서 평온하게 바다를 건넜다.

현장은 인도에서 여러날 묵다가 많은 경서를 갖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만 거부기가 부탁한 일을 잊고말았다.

현장을 본 거부기는 급히 헤엄쳐왔다. 현장이 등에 오르기도전에 거부기가 물었다. “내가 부탁한 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장은 “등에 올라앉은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현장은 경서를 전부 거북등에 옮겨놓은후 자기도 등에 올라앉았다. 거부기는 현장이 등에 오르자 다시 물었다. “나는 도대체 언제 죽는답니까?” 이에 현장은 “먼저 해염치십시오. 바다중간에 가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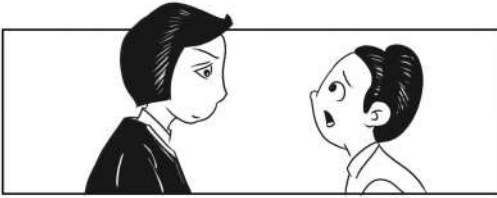
거부기는 은근히 의심이 생겼지만 현장이 사람을 속일순 없다고 생각하고는 열심히 해염을 쳐 바다중간에 이르렀다. 거부기는 또다시 물었다. “현장님, 이제는 알려주겠지요! 나는 대체 언제 죽는답니까?” 그러거나말거나 현장은 “급해마십시오, 바다건너편에 이르면 천천히 말해드리리다.”라고 답했다.

화가 난 거부기는 현장에게 말했다. “바다중간에 이르면 알려준다고 해놓고 왜 또 바다건너편입니까? 솔직히 말해보십시오! 도대체 물어보기나 한것입니까?”

거부기의 물음에 현장은 말이 막혀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거부기는 자기가 속았음을 알아차리고 고의적으로 몸을 흔들며 현장과 경서를 몽땅 바다에 빠뜨렸다. 바다에 빠진 현장은 거부기의 밥이 되었고 현장의 고기를 먹은 거부기는 수명이 더 길어져 천년은 물론이고 만년도 살수 있게 되었다!

한편 사람들은 그 많은 경서가 바다에 빠뜨려졌다는 말을 듣고 모두가 달려들어 경서를 건지기 시작했다. 전하는데 의하면 일부 경서를 건져내어 해변에다 말리웠는데 일부는 완정하였고 일부는 불완정했으며 또 일부는 건져내지 못했다. 이때문에 어떤 민족은 문자가 있는데 그것은 건져낸 부분이고 어떤 민족은 문자가 없는데 그것은 건져내지 못한 부분이다. 다우르문은 바로 그때 잃어버린것이다.

지금까지도 다우르족은 문자가 없는것으로 하여 괴로와하면서 이 이야기를 할적마다 현장을 나무란다고 한다!



제2장 다우르족의 민족신앙

다우르족의 주요 신앙은 사만교(薩滿敎)이다. 그들은 수많은 신령을 숭배하고 천신(天神), 산신(山神), 수신(樹神) 등을 공양하며 그들의 보우를 기도한다.

언두르(恩都日)는 다우르족전설속의 천신으로서 그에 관한 이야기는 매우 많다. 그중 한가지 이야기는 아래와 같다.

언두르에 관한 전설

옛날 한 동네에 부부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고있었다. 집이 너무도 가난해 설이 다가왔지만 밥지을 쌀도 없었다. 안해가 남편에게 말했다. “설도 다가오는데 집에 쌀 한알도 없네요. 아무래도 당신이 이웃에 가서 식량을 꺾와야 되겠어요!” 안해의 말에 남편은 자루를 들고 집을 나섰다.

그는 걸으면서 생각했다. 어디에 가서 식량을 꾸담? 언제면 이 노릇을 끝낼 수 있을까? 당당한 오척사나이가 처자식도 못먹여살리면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는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사이에 어느덧 큰 나무아래에 도착하였다. 그는 자루를 찢어서 끈을 만든후 나무에 목을 매었다. 숨이 곧 넘어가려는 순간 누군가 자기를 내려놓는것을 느꼈다. 한참 지나서 깨어나 눈을 떠보니 흰수염 로인 한분이 옆에 앉아있었다. 로인이 그에게 물었다. “젊은이, 무슨 일로 죽을 생각을 하는가?”

그는 사실의 자초지종을 흰수염 로인에게 알려드렸다.

“이보게 젊은이. 그만한 일로 죽을 생각을 하다니? 래일 우리 집으로 쌀꾸러 오게. 이 길을 따라 곧추 40리 가면 사찰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우리 집이네.”